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RI-VALLEY

주임신부 : 오대석 바 오 로 925-537-2909
사목회장 : 이주하 요 한 사 도 626-664-4508
총구역장 : 이성태 세례자 요한 925-667-0966
선종 봉사회장 : 김형근 어 거 스 틴 925-918-3979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2026년 5월 31일 / 제744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 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성 시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 설 손영채 아네스 제1독서 김태현 대건 안드레아 제2독서 김태연 헬렌 입당 81 봉헌 213, 510
Narrator Hawlan Ng 1st Rdg Silvino Cruz 2nd Rdg Sophia Chung 성체 166, 153 파견 80

제1독서 | 탈출 34,4 7c-6.8-9

화 답 송 | 다니 3,52 7.52c .53.54.55.56(◎ 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2코린 13,11-13

복음 환호송 |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 음 | 요한 3,16-18

Date	Sunday School	Priest
5/31/2026	N	Fr. Gus
6/07/2026	N	Fr. Augustine
6/14/2026	N	Fr. Gerald
6/21/2026	N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정의 알폰소, 이순옥 테레사,
김정희 데레사, 정종락 필립보,
배정례 엘리사벳, 이데이빗 바오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8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 존재인 인간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일자리 문제로부터 시작해 인류의 생존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인간만의 고유함을 찾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 중 하나인 창의성의 영역은 최근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글, 음악을 보면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리와 감성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감정이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저는 적어도 사용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이 마치 감정을 가진 것처럼 기능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해주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관심과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은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공감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상당 부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의 말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충분히 잘 흉내 낼 수 있는 영역이라 봅니다.

물론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정말로 인간 지성의 작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조차도 논란이 있으며, 이를 넘어 인간의 감성과 심리 영역에 대해선 더더욱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이든 감성이든 모두 인간 뇌의 활동으로, 다시 말해 육체적 존재로 인간을 한정하여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간만의 고유성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교에서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야기해 왔던 영혼의 영역, 곧 인간의 영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앞에서 교황님께서는 마음의 지혜를 강조하시며 우리의 성찰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는 분명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혼의 존재, 인간의 영적 측면을 부정하고 오직 육신만을 긍정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인간의 심리와 감정의 영역으로 축소하여 해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영적 영역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으로 나누어 육신과 영혼의 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우리는 정신적 활동과 심리적인 부분들 또한 육체적 활동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줄곧 강조한 영혼은 “인간의 생명이나 인격 전체” 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질로 구성된 우리의 육체가 살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때문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인간의 영적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혼은 부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만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은 바로 영적 측면, 영혼의 자리입니다.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USA)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 (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Aqua Fresh Water Service  정수기 연수기 \$24.99 per month (408)499-6543 성당교우 특별우대</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p>미사후 신선한 건강식 맛집천교 어머세요? KAKI SUSHI BISTRO 3120 Santa Rita Rd. Ste.G Pleasanton, CA 94566 925-484-4827 11:15AM open, 5:00PM open</p>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2,028	\$140	\$2,470	\$130	\$130	\$4,908

(수표는 Pay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5), 남석훈(5), 문지훈(5), 윤혜숙(4),
이예진(5), 이정아(4-6), 장찬(5), 전은석(5),
정병섭(4-6), 조원정(5), 최두은(3,4), 함용기(5)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5), 남석훈(5), 정병섭(4-6), 조원정(5)

● Bishop's Appeal

김성치(5), 남석훈(5), 정병섭(4-6), 조원정(5)

● 감사 봉헌금 故심견 바오로 유가족, 오현주

● 건축 봉헌금 조원정

● 간식 봉헌 요셉회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모든 사람을 위한 식량

대규모 생산자부터 소규모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식량 낭비를 줄여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보장하고자 노력하도록
기도합니다.

That everyone might have food

Let us pray that everyone, from large producers to small
consumers, be committed to avoid wasting food, and to ensure
that everyone has access to quality food.

그림 목상



아마도 당신은 | 꽃봉오리에게 우주를
물습니다. 물에서 왔는지, 햇살에서
왔는지, 바람에서 왔는지... 알 듯 말 듯
그대로 두기도 하고, 가위바위보처럼
끝없이 생각을 바꾸어도 보지만,
아마도 사랑은 변화하는 능력일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있는 나'라고
존재를 밝히신 당신의 이름도 글자로
쓸수록 못갖춘마디가 되는데,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온기를 적셔 마음에
녹아드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법인가
봅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하나비 스시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레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

친절하고 꼼꼼한 부동산, 끝까지 책임집니다!
니콜라오
Aiden Kim 김현우
925.389.2463
Broker Associate DRE#01983236
McGuire Olson REAL ESTATE TEAM
COMPASS

PETSMART VETERINARY SERVICES
한국어 상담 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CA 94568
925-644-3114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NISSAN CHEVROLET HYUNDAI SUBARU KIA Jeep RAM BUICK GMC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

엘리트학원
ELITE EDUCATIONAL INSTITUTE
www.eliteprep.com
Elite San Ramon (925) 234 - 9853
3160 Crow Canyon Rd #190 San Ramon
sanramon@eliteprep.com
Elite San Jose (408) 266 -3838
1375 Blossom Hill Rd #8 San Jose
sanjose@eliteprep.com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광고를 모집합니다.
TVKCC 홍보부
hongbo@tvkcc.org
925-871-9746



공지사항

● 전례 및 주요 일정

- 5월 31일(주일) 고등학생, 복사단 졸업 축복 미사
- 6월 06일(토) 성모 신심 미사 (9:30AM, 소성당)
- 6월 13일(토) 꼬미시움 야유회 (오클랜드 본당)

● 사무장 휴가

- 6/9(화)-19(금)

● TVKCC Youth Day 설문 조사

- TVKCC 첫 Youth Day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더 즐겁고 의미 있는 Youth Day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온라인 설문지:
<https://tinyurl.com/2026YouthDaySurvey>

● 성 가브리엘 복사단 졸업 축복 파티

- 일시: 5월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10:30AM
- 장소: 성당 주차장 앞 (작년과 같은 장소)

● 원죄 없으신 모후 꼬미시움 야유회

- 일시: 6월 13일 (토) 10AM ~ 4PM
- 장소: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Oakland CA)
- 참가대상: 꼬미시움 산하 전 레지오 행동단원, 협조단원 및 가족

● 견진성사 신청, 견진 교리 및 신자 재교육

- 대상 : 세례 후 견진 안 받은 성인 포함 모든 신자.
중고등부 학생은 오클랜드 교구 견진 프로그램 따름
- 견진성사 예정일 : 09. 27.(주일) 미사 중
- 집전 : 김주영 시몬 주교님(춘천교구장)
- 견진 교리 : 8/2, 8/16, 8/30, 9/6.
02:00PM~04:00PM, 장소 : 소성당 및 Room A,B
- 신청 마감 : 6월 28일(주일)
- 견진성사 신청서 작성 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 본당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미 견진을 받으셨으나 함께 참석하여 신앙 재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구글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QhZxTbGduwd825Ns5>

● TVCS Annual Soccer Gear Drive

- TVCS (트라이벨리 커뮤니티 서비스)는 CRECE (중남미 난민 위원회)와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축구 프로그램 "Better Together Soccer"을 위해 아래와 같이 donation을 받습니다.
- 새것 혹은 깨끗하게 쓴 축구 및 스포츠 용품 (유니폼, 축구화, 공, 등) 또는 기부금 (pay to: CRECE)을 받습니다.
- 마감: 6월 28일(주일)
- 수집장소: 소성당 앞 수집함
- 문의: 김연서 메토디오 (310) 869-0668

● 2026-2027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 세례 예정일 : 2027. 03. 28.(부활 대축일)
- 교리반 시작일 : 2026. 09. 06.(주일) 11AM
- 신청 마감 : 8월 30일(주일)
- 예비 신자 모집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2026 UNITAS - Bay Area Korean-American Young Adult Retreat

- Date: Friday, June 19, 2026 - Sunday, June 21, 2026
- Location: San Damiano Retreat Center, Danville, CA
- Registration: <https://retreat.unitasbayarea.org>
- Registration Fee: \$280 (after May 24, 2026)
- Contact: unitasretreat@gmail.com
- 피정비가 3천불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네이션을 바랍니다. 본당 사무실 접수

●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여러분의 고유하고도 개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기, 수필, 시 등 형식의 제한이 없고, 주제도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기명/무기명 게재 모두 가능합니다.
- 작성하신 글은 신부님(dpc2006@gmail.com)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